



대한항공 한선수

6억5000만원 대한항공 잔류 한선수, 최고연봉 다시 썼다

대한항공 세터 한선수(33)가 프로배구 역대 최고몸값을 다시 찍었다. 한선수는 남자프로배구 프리에이전트(FA) 우선협상 종료일인 14일 대한항공과 재계약에 합의했다.

합의 금액은 연봉 6억 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종전까지 프로배구 최고연봉은 한선수의 5억원이었다. 한선수는 다시 자신의 힘으로 최고연봉 기록을 새로 쓴 것이다.

OK저축은행도 세터 이민규(26)와 레프트 송명근(25)의 잔류 계약에 성공했다. OK저축은행은 한국배구연맹(KOVO) 이사회에서 샐러리캡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자체 FA인 이민규와 송명근, 송희재 등을 잡기 위한 사전포석이었다. '경기대 출신 삼총사'로 통하는 세 선수는 OK저축은행의 V리그 2연패(2014~2015, 2015~2016시즌) 공신이었다.

이 가운데 레프트 송희재(26)와는 잔류 협상이 결렬됐다. 송희재는 삼성화재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는 군 입대한 류윤식을 대체할 레프트 자원이 절실하다.

송희재를 잃은 상황에서 이민규, 송명근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OK저축은행은 이민규를 연봉 4억5000만원, 송명근을 연봉 4억원에 잡았다. 그러나 이것은 발표 액수일 뿐이다. 공개되지 않은 옵션을 고려하면 액수는 더 올라간다고 봐야 한다. 배구계에서는 "FA 시장의 최대수혜자는 이민규"라는 말이 나온다.

어느덧 프로배구도 프로야구처럼 '다운 계약(실 수령액보다 발표조건을 낮추는 것)'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KOVO 규정은 옵션에 관해 규제 조항이 없다. 그러나 한선수의 최고 몸값도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 15일부터 FA 최대어로 꼽히는 레프트 전광인의 협상이 개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여자부는 센터 김세영과 레프트 김미연이 흥국생명행을 택했다. 리베로 한지현은 IBK기업은행으로 이적했다.

김영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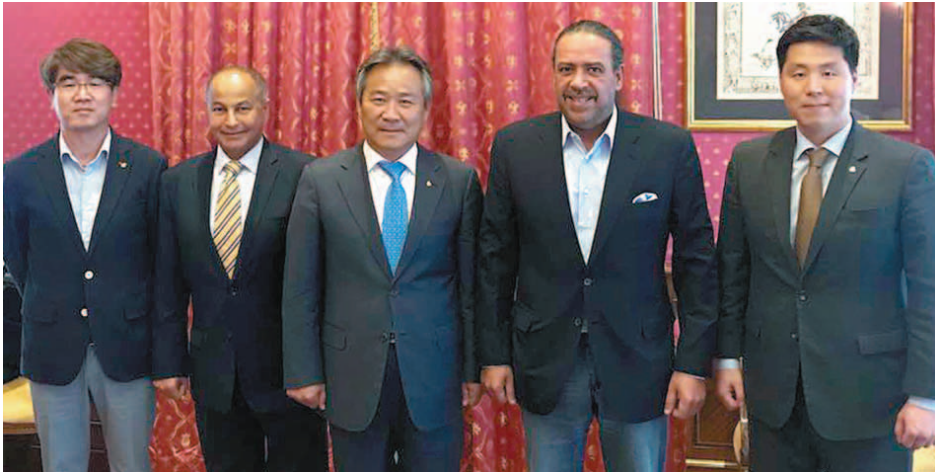
AG 남북 단일팀 축소 전망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OCA 회장과의 면담 결과 공개

“엔트리는 못 늘린다” 남북 단일팀의 조건

엔트리 증원 없는 범위만 허용 방침
카누 등 극히 일부 종목만 구성 예상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에서 개최될 아시안게임에서 남북단일팀이 당초 예상보다 축소 운영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14일 “올해 아시안게임은 엔트리 증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남북단일팀을 허용한다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루 전 스위스 로잔에서 셰이크 아흐마드 알사바 OCA 회장과 면담을 가진 이 회장은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면담에서 이 회장은 아시안게임 개·폐회식에서의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등을 논의했다.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입으면 옳지 않다”는 원칙에 따라 이 회장은 OCA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최근 스포츠동아와 인터뷰에서도 “가장 염두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가운데)이 13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OCA 셰이크 아흐마드 알사바 회장과 만나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OCA는 엔트리 확대가 없는 범위에서만 단일팀 구성을 허용한다는 뜻을 전했다. 사진제공 | 대한체육회

손되거나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입으면 옳지 않다”는 원칙에 따라 이 회장은 OCA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최근 스포츠동아와 인터뷰에서도 “가장 염두에

둘 부분이 우리 선수단이다. 남녀 선수들에게 아시안게임 출전은 포기할 수 없는 영예”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OCA도 원칙과 과정을 중시할 수 밖

에 없었다. 우리에게만 엔트리를 확대해 줄 경우, 국제 스포츠계로부터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 한해 엔트리 증원을 허용한 전례도 있으나 아시안게임에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엔트리를 증원하지 않는 선에서 남북단일팀을 결성하면 현실적으로 구성 가능한 종목이 많지 않은 탓이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스포츠 산 하단체들에 남북단일팀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을 때 7개 종목이 관심을 표명했으나 현실적으로 카누를 비롯한 극히 일부 종목들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반도기를 앞세운 아시안게임 남북공동입장은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북일고 vs 광주동성고 첫날부터 빅매치

대진 최종 확정…3연패 도전 덕수고 대진 무난
‘투타 최강’ 경남고는 ‘주말장자’ 야탑고와 첫판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 내일 개막



제72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이 16일부터 28일까지 목동구장에서 개최된다.

황금사자기에서 2년 연속 우승한 덕수고의 대회 3연패가 가장 주목된다. 덕수고는 넥센 장정석 감독의 아들로 알려진 장재영이 기대주다. 1학년임에도 시속 150km의 강속구를 원하는 곳에 꽂아 넣을 수 있는 커맨드를 갖추고 있다. 기대 이상 노련한 경기운영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도 따

른다. 벌써 서울지역 프로구단 스카우트 사이에서 ‘지금 당장 신인드래프트에 나와도 1순위 지명을 받을 재목’이라는 호평이 따른다. 장재영은 덕수고의 마무리를 맡을 것이 유력하다.

이번 황금사자기부터 투구수 제한이 엄격히 실시된다. 학생 선수 보호 및 부상 방지를 위한 조치다. 투구수 30개를 초과하면 1일, 45개를 초과하면 2일, 60개를 초과하면 3일, 75개를 초과하면 4일간 휴식을 가져야 한다. 또 투구수 105개에 도달하면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바로 투수를 교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팀 에이스는 선발보다 마무리로 가동될 여지가 발생하는 것

이다. 확실한 에이스 한명보다 실력이 고른 투수를 다수 보유한 팀이 유리한 상황이 됐다. 고교감독들도 관리의 개념을 중시해야 하고, 투수 교체 타이밍이 중요해졌다.

덕수고의 연속 우승을 저지할 강력한 후보로 경남고가 꼽힌다. 경남고는 투타 밸런스에 걸쳐 전국 최강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시속 15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사이드암 에이스 서준원이 돋보인다. 서준원 외에도 투타에 걸쳐 전력이 탄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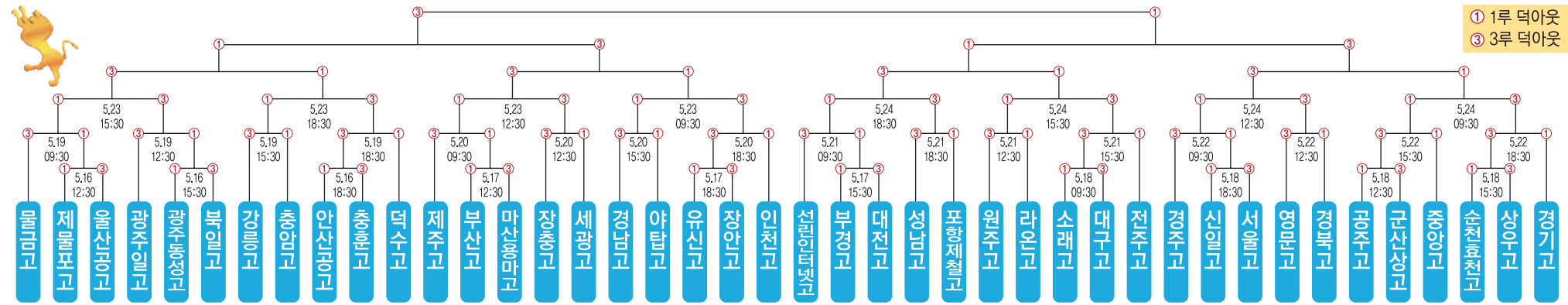
이밖에 서울의 휘문고, 장충고도 다크호스로 꼽힌다. 휘문고 김대한은 주말리그에서 18타수 13안타를 기록했고, 투수로서

도 시속 150km를 던진다. 파워히터 변우혁을 보유한 천안북일고도 복병이다. 전한화 배터리코치로 일했던 신정현 전 천안북일고 코치의 아들인 신지후도 196cm의 체구를 갖췄고, 140km 후반대 강속구를 던진다. 서준원과 더불어 고교 최고투수로 평가 받는 좌완 김기훈이 버티는 광주동성고도 무시할 수 없다. 전통의 명문 광주일고도 4번타자 겸 유격수인 김창평의 성장세가 무섭다.

14일 최종 대진이 확정된 가운데 이번 대회는 16일 낮 12시30분 제물포고-울산공고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김영준 기자 gaizby@donga.com

제 72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기간 : 2017년 5월 16일~28일 장소 : 목동야구장



주최 : 동아일보사 스포츠동아 KBSA 협찬 : SK telecom

감독 눈에 든 박지수…WNBA 개막전 설까?

레이미어 감독 “열정적이고 영리해”
센터 자원 부족…로스터 진입 기대

박지수(20·198cm)가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시범경기 일정을 마쳤다.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의 박지수는 1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칼리자파크센터에서 열린 댈러스 워스와의 2018 WNBA 시범경기에 스타팅 멤버로 출전해 20분41초간 4점·5리바운드·3블록슛을 기록했다. 라스베이거스는 댈러스에 55-68로 패했다. 박지수는 두 차례의 시범경기에서 평균 6.0점·4.5리바운드·2.5블록슛의 기록을 남겼다. 이제 관건은 박지수의 최종 로스터(12명) 진입 여부다. 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한 WNBA 12개 팀은 18일까지 2018정규리그에 나설 12명의 로스터를 WNBA 사무국에 제출한다. 여기에 포함될 경우, 박지수는 21일 예정된 코네티컷 선과의 정규리그 개막경기(원정)에 출전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최종 로스터 진입이 희망적



박지수

이다. 라스베이거스가 센터 자원이 많지 않다는 점도 박지수의 로스터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범경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19명의 선수 중 센터는 3명 뿐이다. 이중 파워포워드 이사벨 해리스(191cm)은 건강 문제로 아예 팀 전력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인원은 18명이다.

라스베이거스의 빌 레이미어(61) 감독은 라스베이거스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박지수는 기술이 좋고 훈련에 열정적인 태도를 가진 선수다. 영어를 배우기는 단계지만, 의사소통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영리한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지수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WNBA에 도전하면서 한국에서 농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한국 농구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KLPGA 40주년’ 박세리 공로상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1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78년 5월 강춘자와 고(故) 한명현, 고 구옥희, 안종현 등 4명의 프로골퍼를 탄생시키며 출발한 KLPGA는 40년간 발전과 성장을 거치며 세계여자골프를 대표하는 투어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한국과 미국 무대에서 KLPGA의 위상을 드높였던 박세리(오른쪽)가 김성열 KLPGA 회장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 | KLPGA